

인천정유 매각작업 백지화 “재입찰”

인천지법, Citigroup 특혜 우려 원점회귀 ... 매각 완료시기 7-8월 연기

2005년 1월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인천정유 매각작업이 5월 공개입찰 방식으로 재개된다.

인천정유를 법정관리중인 인천지방법원은 4월15일 인천정유의 최대 채권단인 미국 Citigroup 계열 자산유동화 회사인 블루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인수가격을 제시하면 다른 인수 희망기관들의 가격과 비교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측에 매각기로 한 기존방침을 폐지하고 5월초 매각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당초 씨티그룹으로부터 먼저 인수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한 뒤 다른 인수 희망기관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씨티그룹에 곧바로 매각할 방침이었다.

또 씨티그룹보다 높은 인수가격을 제출한 인수 희망기관이 있으면 최고가를 적어낸 기관과 씨티그룹과의 결선 입찰을 진행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정유 매각작업을 진행하던 담당자들이 2월 교체된 뒤 구성된 새로운 파산부는 기존의 매각방침이 씨티그룹에 유리한 기회를 준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원점으로 돌려 재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정유는 매각입찰 공고부터 의향서 접수, 실사, 인수금액 제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본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다.

인천지법은 7월이나 8월 인천정유 매각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씨티그룹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인수 희망기관이 나오면 다시 결선입찰을 진행기로 한 기존방침은 어느 한쪽에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3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인천정유는 2004년 9월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chem과 6351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최대 채권단인 씨티그룹이 관계인 집회에서 낮은 인수가격을 이유로 잇따라 반대의사를 밝혀 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체 인수여사를 밝히면서 매각작업이 지연돼왔다.

<화학저널 2005/04/18>